



마을공동체와 거버넌스

(재)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

뉴딜지원 /공동체활성화팀 오태석



1. 마을공동체 시작과 고민

● 주체는 누구인가?

: 주민, 행정, 외부전문가, 중간지원조직.....그리고 견제세력

역할

주체별 역할은 구분되어 있는가?

목표

주체별 활동의 목표는 동일한가?

다양성

마을의 다양한 주민 의견은 반영되고 있는가?

1. 마을공동체에 대한 시작과 고민

● 천천히 마을공동체

마을공동체 시작은 급하게 하였지만, 조직과정은 천천히 진행형으로, 성과는 지속가능

* 다양한 소모임 활동의 필요성

(다양성, 소모임에서 주민들의 의견 반영 즉, 일부 주체들에 의한 진행의 한계 극복)

* 주체들도 소모임 활동에 참여 - 소모임을 제안한 주체들의 참여, 공모사업

소모임 활동이 통합모임으로,
주민자치와 지역자원 연계

2. 거버넌스

● 어떻게 함께 - 혼자 잘난 사람 있나

- 개인과 개인, 개인/집단과 집단, 마을과 마을 그리고 주민 외 주체들간
- 주민공동체/소모임 → 마을공동체 → 지역공동체 그리고 거버넌스

● 함께의 문제 : 활동 방식에 따른 공통의 목표 의식이 있어야

- 소모임은 소모임대로
- 마을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의 활동(공간을 넘어)
- 특히 마을과 마을 그리고 거버넌스는 목표의식이 동일하여야 한다

2. 거버넌스

● **수행방법** : 지역자원연계(네트워크) 혼자하면 안돼! **함께 해야 돼!**

- 시작 : 미흡하지만, 과정과 성과는 위대할 수 있다.
- 과정 : 우리 마을에 숨어 있는 자원을 파악하라(외부지원세력 연계)
- 성과 : **예산이 없다고 행정의 지원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.**
: **소모임에서부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였기에,**
이제는 다양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연계

나아가 , 기초단체 내에서 입법활동과 의회 감시 기능으로 성장

3. 함께하는 부산 사례

● 시작은 어렵지만, 모이면 잘된다.

: 산복도로 , 행복마을, 사상민 등을 통한 함께하는 주민역량 강화

산복네트워크

2011년 시작, 행정지원 종료, 산만디 잔치(5회째), 산복네트워크 연2회, 각종 공모사업 등

행복네트워크

복권기금 종료, 71개마을, 행복더하기, 네트워크 데이, 자조모임

민간협의체
-사상민-

행복마을, 산복도로, 새뜰마을, 복지시설, 인권단체 등
기초단체 내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. 2019 국토부 한마당 대상

4. 방향

● 온라인 소통 채널 강화

대표성

마을 내 엘리트 집단, 특정 성별, 연령, 단체 활동에 편중

전문성

주민 외 주체들에 의한 전문성이 지배적, 정보접근성 강화

의견의 다양성

소수에 의한 지배적 의사구조, 얼굴보고 반대 의견 어떻게?

4. 방향

● 주민자치 권한

